

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 5일 집주인에게서 “실거주 들어갈 예정이니 나가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초·중·고에 다니는 아이 셋을 키우는 김씨는 작년 6억원대에 전세 계약할 때 60대 집주인한테서 “전혀 들어올 생각 없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믿고 아무 걱정도 안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인 임대인은 “미안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며 “세금 등을 계산해 봤는데 답이 없어, 내년에 계약 만료되면 입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살 수 있겠다 싶어 들어왔는데, 근방에 5인 가족이 살 만한

세금 부담 커진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하겠다” 전화 속출 전세 다시 찾는 세입자 늘어 서울·경기 전월세난 심화 전망

다른 전세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급히 단지 내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1억원 이상 비싸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지난 3일 발표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커진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각 또는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투기꾼으

로 규정·압박한 게 고스란히 주가 사다리의 아래에 있는 전·월세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6년 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갱신권은 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직접 거주와 매각 시에는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제 개편으로 실거

주 여부가 연간 종합부동산세 수백만~수천만 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 입차인을 내보내고 입주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다.

최근 2년(2024년 8월~2026년 8월) 내 서울·경기에서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약 37만 가구는 이런 집주인의 입주나 매각 선택으로 ‘전세 갱신 계약’을 못 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만 명 이상의 비거주 1주택자가 동시에 실거주를 택하면, 당장 전세 매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전셋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A3면에 계속



폭염에 KTX 선로 휠라, 긴급 살수

6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근의 고속철 선로에서 달아오른 레일을 식히기 위해 자동살수장치에서 물이 뿌려지고 있다. 폭염 때문에 레일이 팽창해 선로가 옆으로 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의 최고기온이 40도로 관측되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조선경제 색선 이번주 쉽다 경제 기사 A18면

八面鋒

與 서울 의원들 “부동산세 정부안 수정해야”. 배지 달랑달랑하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분들 움직이기 시작.

○ 폭염에 그늘 길 알려주는 앱, 내려받기 1위 올라. 햇빛 반사율 높이는 인공 구름 연구까지 하는 뜨거운 세상.

○ 美민주당 경선서 강성진보 후보들이 온건 주류파에 연승. ‘언더셔츠(난닝구)’ 대 ‘화이트팬츠(백바지)’ 대결?

서울 40도 찍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입추 (영등포)

절기별 관측 이후 최고 기온 전망 올해 온열 질환자 2600명 넘어서

입추(立秋)를 하루 앞둔 6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40.0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내 자동기상관측 장비(AWS)에서 40도 이상이 측정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중부 폭염이 7일 절정에 이르면서 30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설치된 AWS에 40.0도가 찍혔다. 비록 영등포구 당산동 AWS는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공적 열기를 많이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기상청 공식 통계로 기록되진 않지만, 실제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더위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내 29곳에 설치된 AWS 가운데 공식 통계로 기록된 서울의 최고기온은 용산구에서 측정된 39.9도였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39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 수은

주가 31~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절기별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가 될 전망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하루 전날인 5일 전국에 있는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2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총 266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 56.5%가 8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박상현·조성호 기자 A2면에 계속

美, 핵우산 전략 전환 추진 단거리 전술핵 비중 확대

콜비 국방 정책 차관이 논의 주도 채택 땀 주한미군에 배치 가능성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동맹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장거리 ‘전략핵무기’ 대신 제한된 표적을 겨냥하는 단거리 전술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다시 짜려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전략이 채택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반도 방위 태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전면 철수한 주한 미군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장거리 전략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전술 핵무기에 더 무게를 실는 새 전략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역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콜비는 이날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의 전략사령부(STRATCOM)에서 열린 확장 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을 했다. 전략사는 전 세계 핵전력 운용, 전략적 억제 등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전투사령부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공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A6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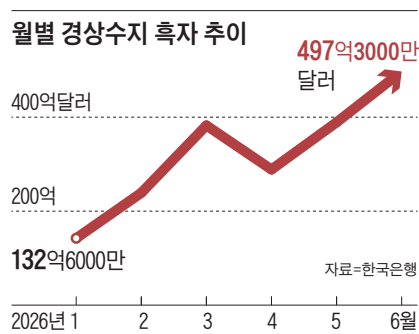
상반기 경상 흑자, 이미 작년의 1.5배

반도체 호황에 두달 연속 최고치 6월까지 누적 1910억달러 넘어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경상수지가 4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호황이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치인 5월의 386억1000만달러보다 111억2000만달러 많다.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910억10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흑자 1230억5380만달러의 1.5배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으론 지난해 478억7000만달러의 네 배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 증가는 반도체 수출이 이끈 상품수지가 주도하고 있다. 6월 상품수지 흑자는 478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00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역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흑자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97%에 달하는 등 IT(정보기술) 관련 상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율은 작년 6월 25%에서 올해 6월 44%로 상승했다.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서울 외환 시장에 풀린 영향 등으로 지난 달 달러당 1500원을 넘었던 원화 환율은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다. 6일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415원대로 하락했다가 전일 종가보다 0.7원 내린 1423.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오후 3시 30분 기준) 환율이 장중 1415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주간 증가는 지난 1월 28일 1422.5원 이후 최저였다.

여행 수지가 개선된 것도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 방문 외국인이 증가한 가운데 유류 할증료와 고환율 부담에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줄면서 6월 여행 수지는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역대 둘째로 큰 흑자다. 김신영 기자 A18면에 계속

PRUGIO

삼시세끼 식사준비와 설거지로부터 해방!

과천 옆 총 1,378세대 신축 대단지 즉시입주

(약 18·25·36평)

과천시 서울방면 서초구 강남구 롯데타워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백운호수공원 수변데크 산책로(약 3km)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전·월세 매물 마감임박!

바로 입주해서 누리는 365일 식사·헬스케어 서비스!

조·중·석식 식사 서비스 전문 영양사 맞춤 식단

하우스 키팅 렌드리 서비스 세대 청소, 세탁 등 가사 지원

24시간 간호사 상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수영장 (아쿠아로빅) 25m/3개레인, 건강프로그램 진행

입주자 전용 셔틀버스 인덕원역, 판교역 상시 운행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1577-5052 오피스텔 | 119㎡ 스위트 | 61㎡, 84㎡

M+ 엔디엘플러스 KAIT 한국자산신탁 D 대우건설